

세계주교시노드 교구단계 제1회기: 경청단계

12월에 나누어야 할 두 번째 주제는 “참여”입니다. 이 시노드의 여정에는 모든 하느님 백성이 ‘참여’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. 하느님 백성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, 이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들입니다. 그러므로, 우리 하느님 백성 모두는, 성령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선물들을 서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.

1. **거행: ‘함께 걷기’는 공동체가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기반을 둘 때만 가능합니다.**

- 우리 공동체에는 기도와 전례 거행이 신앙생활과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에 중요한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?
- 우리 공동체에서 모든 신자들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와 성화하는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? 어떤 방식으로 전례와 기도생활에 참여하고, 이 방식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?
- 우리 자신에게 미사와 기도는 어떤 의미이며, 어떤 마음으로 미사에 참례합니까?

2. **권위와 참여: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참여적이고 공동 책임을 갖는 교회입니다.**

-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사목적 방향과 그 실천 내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습니까? 이 방식에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
- 우리 공동체 안의 평의회(사목평의회, 재무평의회)를 비롯한 자문기구가 충분히 설정되고 제 역할을 수행합니까? 이 자문기구들을 통해 모든 하느님 백성의 참여가 이루어집니까?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제도적 기구는 무엇입니까?
-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 ‘함께 결정을 만드는’ 시노드적 과정과, 목자의 권위로써 ‘결정을 내리는’ 직무적 책임이 원활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? 어떤 부분이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자리하고,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?

3. **식별과 결정: 시노드적 삶은 모두 함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기반을 둔 식별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**

- 우리 공동체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함께 식별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? 또한 이런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습니까?
- ‘나의 자리에서’ 우리 공동체가 지닌 사명에 대한 ‘공동 책임성’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, 이러한 책임과 직무가 지켜질 수 있는 ‘나의 자리’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?